

호흡기 구조와 오리 패혈증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대책

강 철
(신촌사료 관리수의사)

1. 서언

오리 패혈증은 오리사육농가의 육성율을 저하시키고 감염된 오리는 회복데더라고 위축되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질병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오리 사육농가라면 이 질병에 의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할 만큼 국내 오리사육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의 근간은 질병발생전에 사양관리의 개선에 의한 사육환경을 최적의 조건을 조성해 준다든가 소독 등을 통하여 병원감염 요소를 차단하는 일, 또는 예방치료제인 항생제의 투약등으로 질병발병요인을 줄이는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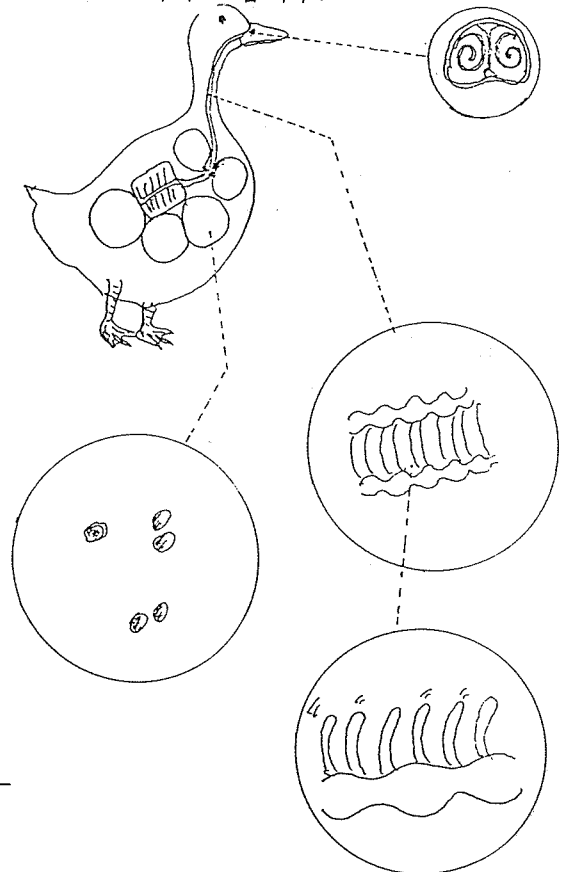
이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오리 호흡기관에 대해 이해하고 사양관리가 이뤄진다면 오리패혈증에 의한 농가피해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오리호흡기관에 대하여 알아보고 오리패혈증 예방을 위한 사

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원인균 및 치료대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리 호흡기 구조와 오리 패혈증

<그림1>은 오리의 호흡기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세부도입니다.
<그림1> 오리의 호흡기구조



먼저 그림 ①은 오리 코부분인 비강을 잘라 내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②는 기도점막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 그림③은 기도점막의 내부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그림③의 그림은 기도부분의 섬모로서 각종 이물질이나 세균 등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의 호흡기 구조는 사람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경우 코에 털이 나있어 일차로 오염물질이 걸러지고 그래도 들어간 오염물질은 기도내 섬모에 의해 2차로 걸러지고 폐까지 도달된 오염물질은 다시 고여있다고 가래 등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의 경우는 비강에서 점막 등에 의해 걸러지지 못한 오염물질은 기도에서 섬모에 의해 2차로 걸러지는 것 까지는 같으나 기도를 통과해 기낭에 모인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하고 기낭옆으로 퍼지게 되어 오리 패혈증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염물질은 세균과 함께 증식되어 썩게 되어 질병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의 패혈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이 기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같은 기전을 알고 오리 패혈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원인균 및 증상

1) 원인균: 오리패혈증의 원인균은 리메렐라 아나티페스티퍼(Riemerell Anatipestifer) 에 의하고 대장균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2) 증상: 3주령에서 5주령 사이에 많이 발생되고 보행착란,신경증상,침울 등을 보이며 폐사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출하시 작업중 급하하는 경우도 있으며 폐사율은 5%이하부터 20%이상까지 환경 및 관리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3) 진단 : 육안소견으로 보행착란이 대표적이며 결막염,밤에 골골하는 호흡음을 들을 수 있으며 부검시 기낭염,간포막염,심낭염 등 다양한 정도로 나타난다.

4. 감염경로 및 대책

1) 감염경로 : 주로 1-2주령때 호흡기를 통해 기낭에 감염되어 잠복해 있다가 스트레스 요인 작용시 급작스럽게 발병하는 경향이 있다.

2) 대책 :

① 환경개선

오리패혈증은 1-2주령 사이에 호흡기를 통해 기낭에 감염되므로 1-2주령사이의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

여 비강이 건조하지 않고 항상 젖어 있게하여 오염물질이 기낭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준다.

또 환기를 철저히하여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유지시켜 주고 가스발생을 억제하여 기도내 섬모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하여 준다.

이는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도내 섬모가 암모니아

가스에 의해 활동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발병한 오리는 즉시 도태시킨다.

② 치료:

이 질병치료를 위해서는 1-2주령때 호흡기 소리가 들릴 때 치료용량의 항생제를 2배로하여 4-5일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